

# 국가 예산 10조 목표... 미래 전북 위해 달린다

도, '새로운 전북' 의 성장 동력 확보 위해... 민생 안정 지원 · 새만금 신공항 정상 추진 등 총력

전북특별자치도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9월 22일~28일) 추진될 주요 업무와 현안들을 상세히 밝혔다.

국회 단계의 국가 예산 확보 총력전부터 민생 안정 지원, 새만금 신공항 정상 추진, 미래 인프라 확보까지 '새로운 전북'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숨 가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열린 도정'을 약속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 10조 원' 목표 달성을 위해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천영평 실장은 "10월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국회 심의에 대비, 미반영되거나 부족하게 반영된 70개 중점 사업을 정비하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희소식도 전해졌다. 오는 금요일부터는 '민생 회복 초기 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약 162만 명의 도민이 1인당 10만 원씩 받게 되며, 신분증 제시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 소비자 생협까지 포함, 도민 편의가 크게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주요 도정운영추진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선고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국토부와 강력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이미 국토부와 실무 협의를 마치고 △집행정지 신청 대응 △항소심 소송 보조참가 △2026년 예산 정상 반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전북은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SOC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에

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토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안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전주-무주 △완주-세종 △군산-논산 노선을 비롯한 총 5개 고속도로 노선 반영을 건의 중이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영호남 내륙선 등 7개 노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23개 노선 반영을 건의하며 전방위적인 인

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이번 주에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행사들도 연이어 펼쳐진다. 23일부터 이틀간 남원에서는 '제2회 전북 포럼'이 열려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25일부터 이틀간 전주에서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제6회 지니 포럼'이 개최된다.

또한 29일부터 3주간은 '호남 관광 문화주간'이 운영되어 서울역 공동 홍보관 조성 및 특화 관광 상품 구축을 통해 호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기관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24일 회의를 통해 정부의 로드맵 발표 동향을 점검한다.

천 실장은 "현재로서는 2027년쯤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동향에 따른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천 실장은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숨 가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도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통해 전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것을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SNS 이벤트

IOC 글로벌 캠페인 '레츠무브' 연계 이벤트... 10월 19일까지 진행  
국민 누구나 참여... 2인 이상 운동 · 활동 영상 개인 SNS에 게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향한 국민적 관심과 응원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 중인 '내국민 SNS 참여 이벤트' 마지막 3회차를 시작했다.

이번 이벤트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되며, IOC 글로벌 캠페인 '레츠무브(Let's Move)'의 슬로건인 '함께 움직이자(Pick Your +1 and Move Together)' 아래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일상 속에서 건강한 움직임을 실천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2인 이상이 함께 운동하거나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필수 해시태그(#LETSMOVE #전주올림픽 유치 응원 #OLYMPICDAY #JEONJU)와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하면 된다.

스트레칭, 산책, 댄스, 러닝 등 가벼운 활동도 가능하며, 게시물 캡처와 참가 신청서(네이버 폼)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2회차 이벤트를 운영해왔다.

특히 2차 이벤트에서는 기부천사 선(Scan)이 참여한 응원 홍보 영상이 공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영상은 좋아요 1만 건, 조회수 50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들였다.

이번 3차 이벤트의 당첨자 추첨은 10월 23일에 진행되며, 총 115명에게 경품이 제공된다. 10인 이상 단체 참가자에게는 특별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jeonbuksta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j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희숙 도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올림픽 유치전은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성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SNS 이벤트의 열기를 이어 오는 11월 16일 '올림픽데이인 2025 in 전주'를 개최하며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도의회 의원 · 사무처 직원 화합 · 소통의 장

도의회, 정읍 일원서 연찬회  
명사 초청 특강 통해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22일부터 1박 2일간 정읍 일원에서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한다.

연찬회 첫날인 22일에는 JS커뮤니케이션 박정순 대표가 강사로 나서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한다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갈등 예방, 신뢰를 높이는 공감적 소통 능력, 도의 리더로서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통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3일에는 염건령 교수가 '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렴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염교수는 "청렴은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이며, 실천 없는 선언은 의미가 없으며, 공직자의 청렴은 법률 준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역설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연찬회가 도정 및 교육 · 학예에 관한 정책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주요 현안을 폭넓게 이해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 소통하며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2일부터 1박 2일간 정읍 일원에서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찬회를 연 가운데, 22일 열린 개회식에서 도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연

찬회는 의원과 직원들이 소통하며 의정역량을 한층 심화시키는 자리"라며, "이후에도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장수군 '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 최종 선정

계남면에 축산지구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농촌마을보호지구 연계 · 조성... 2029년까지 100억원 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서 장수군이 최종 선정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0억원(국비 50억)이 투입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시군이 마련한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서로 연계

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사업 내용에는 지구별 기반 시설 조성, 환경 관리, 생활 편의 시설과 판매 · 주거 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4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황성군(강원)과 장수군(전북)이 2차 공모에서 선정됐다. 앞서 상반기 1차 공모에서는 순창군(전북)과 신안군(전남)이 선정돼, 올해 신규

도입된 사업에서 전국 4곳 중 2곳을 전북이 차지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선도하게 됐다.

장수군은 계남면 일원에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세 구역을 연계 조성한다. 축산지구에는 교육 · 실습시설과 임대 · 이전축산단지 기반을 마련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레드푸드 직판매장 조성 등

을 통해 특산물 유통 · 가공 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 정비와 원터 · 숙소를 조성해 주민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이후 도와 시군이 함께 농촌공간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장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7개 추가... 총 53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전북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답례품 공급업체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기존 46개에서 7개가 추가돼 총 53개로 확대됐다. 새

롭게 추가된 품목은 죽, 사골곰탕, 떡갈비, 꾸지뽕진액, 양말, 전북현대 축구 입장권, 건강검진 할인권 등이다. 식품부터 생활용품, 문화 · 건강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기부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공급업체 모집은 지난 6월 진

행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 · 제조 · 보관 시설을 갖췄거나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이 이뤄졌다. 도는 이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성장성, 안정성, 지역 연계성, 사업 목적 부합성, 스토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기부자가 관심 있는 지자체에 기부한 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신청해 집까지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지역 특산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만호 기자

25억원 투입... 내달 말까지 318ha에 84만 그루 나무 식재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건강한 산림자원 기반 조성, 지역 임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가을철 나무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을철 조림사업에는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약 318헥타르 면적에 84만 그루의 우량 묘목을 식재할 계획이다. 식재 수종은 낙엽송, 백합나무, 편백 등 경제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수종으로, 미래 목재자원 확보는 물론 기후 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조림은 기능별로 △경제림 조성(302ha) △생물권 경관개선을 위한 큰나무 조림(6ha) △대형산불 확산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10ha) 등으로 세분화해 추진된다. 단순한 식재를 넘어 경제적 · 환경적 · 공익적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산림공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나무심기 사업은 주로 봄철에 집중돼 임업 일자리가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가을철까지 조림 시기를 확대함으로써 임업 인력의 연중 고용 안정, 인력 수급 원활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봄철에도 155억원의 투입해 △경제림(1,140ha) △큰나무 조림(255ha) △지역특화림(147ha) △내화수림대(45ha) 등 총 1,587ha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했으며, 여름철 국지성 호우와 폭염 속에서도 풀베기 · 덩굴 제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묘목의 생육을 돕고 있다.

송경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장은 "봄에 심은 나무는 정성껏 가꾸고, 가을에 또 다른 나무를 더해 숲을 키우는 것이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재해 예방, 임업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달 16일 개최... 정례회 회기 결정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2일 회의를 열어 제278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개최 일정을 정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7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으며, 안건은 오는 10월 16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

업무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총 64건의 부의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의원발의 18건) △동의안 24건 △현안업무보고 8건이다.

나종대 위원장은 "제278회 임시회에는 다수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충실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의원발의의 조례안(18건)을 포함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행감특위 새롭게 구성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2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경신),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임종훈) 등 3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선덕) 등 5건, 총 39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둘째날인 23일부터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자농

공(특화)단지 기반시설 증설사업」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총 14곳의 군정 주요 사업장을 방문 · 점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새로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새로운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성만 의원, 오세환 의원, 최인규 의원, 이경신 의원, 차남준 의원 등 5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종훈 의원, 임정호 의원, 조규철 의원, 이선덕 의원 등 4명, 총 9명이 선임됐다.

/고창=김영식 기자